

우분 고체연료 품질 개선 연구 박차

농진청, 온실가스감축 외 연간 약 1500억원 수입 대체 효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경지 감소로 퇴비가 어려워진 우분(牛糞)의 용도 다양화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친환경 고체연료로 상용화하는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농업부산물을 활용해 우분 고체연료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농업부산물 20종을 대상으로 특성을 조사했다. 그 가운데 수분 함량, 발열량 분석을 토대로 분말, 왕겨, 전정 가지류 등 5종을 보조원료로 선정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가축분 고체연료 품질 개선을 위한 반입 원료 확대 관련 법령 개정을 정책으로 제안했으며, 일부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앞으로 계절별 축사 저장기간에 따른 우분 품질 변



농촌진흥청은 농경지 감소로 퇴비가 어려워진 우분(牛糞)을 친환경 고체연료로 상용화하는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실험중인 연구원과 제작된 고체우분.



화를 분석해 고체연료 제조에 적합한 최적 저장기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축사에서 우분을 배출하는 단계부터 품질을 균일화할 수 있도록 적정 저장기간을 조사하고 있다.

우분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유기물 분해가 일어나 고체연료로 만들었

을 때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개선할 계획이다.

연구진은 이와 함께 가축분 처리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고체연료 품질을 비교 분석하고, 우분 고체연료의 적정 유통기간을 산정하는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우분 고체연료가 연소하고

남은 잔재물(소각재, 약 20~30%)의 성질과 상태를 분석해 활용처를 모색할 방침이다.

우분 고체연료가 화석연료(유연탄 1%)를 대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 이외에 연간 약 1,500억 원 상당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2023년 5월 전북도, 김제시, 정읍시, 부안군, 완주군, 전북정읍시지방환경청, 열병합발전소 3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우분 고체연료 사업화 협업을 추진했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에 대한 규제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4월부터 실증 작업에 들어갔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장길원 과장은 "우분 고체연료는 가축분을 에너지원으로 탈비료시키고, 축산 냄새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며 "고품질의 우분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하림은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나무 심기를 통해 미래를 위한 자연환경활동의 ESG경영을 실천하며 녹색환경 조성을 진행했다.

하림, 나무 2933그루 심어

하림 임직원 300여명...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에 앞장

㈜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은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나무 심기를 통해 미래를 위한 자연환경활동의 ESG경영을 실천하며 녹색환경 조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림은 ESG경영 활동을 직접 실천하는 사회적 책임으로 식목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하림 본사 및 외부사업장에서 임직원 300여 명이 참여해 환경개선 사업 실천을 위해 동참했다.

제7회 식목일을 기념해 본사 및 외부사업장을 중심으로 편백나무, 철쭉, 에메랄드그린, 소나무 등 총 2,933그루를 묘목을 식재하고 아름다운 미래 환경 가꾸기를 실천했

다. 특히, 하림은 저탄소 녹색 성장의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에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대 설치 운영하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설비, 제품 포장재 축소, 폐기물 재활용 등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호석 하림 대표이사는 "미래 세대를 위해 친환경적인 자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며 "하림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지역공동체와 함께 상생하기 위한 ESG경영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농식품유통공사, 순창군 유기농산물·전통주 업체 찾아 농촌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최근 순창군 생치면 소재 유기농산물 전문 생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유기지기(대표 심은숙)를 방문해 유기농업 발전과 지역 농촌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김 사장은 "건강과 간편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트렌드에 맞춰 유기농산물도 간편식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면서 "유기농업이 확대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촌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기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회사법인 (유)유기지기는 지역 12개 농가 계약재배와 자체 생산한 원료로 유기농 건조 채소·분말 제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최근 순창군 생치면 소재 유기농산물 전문 생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유기지기를 방문해 유기농업 발전과 지역 농촌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을 개발 판매하며 유기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22년 5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하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김 사장은 순창군의 농업회사법인 (유)친구들의 숲 지관 지교(대표 임숙주)를 방문해 제조시설을 둘러보고, 전통주 산업 육성과 판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 사장은 "세계에서 한국 전통식품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통주 산업을 발전시켜 국내외 전통주 소비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농촌이 활성화되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남부안농협·농협중앙회, '농업인 무료법률상담' 실시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와 남부안농협(조합장 최우식)은 지난 5일 취약농업인 및 조합원 2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농업인 무료법률상담은 농업인에게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분쟁과 역할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향상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법



농협중앙회와 남부안농협은 지난 5일 취약농업인 및 조합원 2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률서비스의 접근이 쉽지 않은 농업인을 위해 농협중앙회 법무지원국장(변호사 소인영)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1:1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했다.

남부안농협 최우식 조합장은 "농업·농촌을 지키는 우리 조합원들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 등을 이번 상담을 통해 많은 부분 궁금증이 풀리고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이 만족할 수 있는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무료법률상담을 담당한 농협중앙회 소인영 법무지원국장은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농업인을 위한 법률 상담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을 보고 농업인으로써 많은 보람과 자긍심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1996년부터 농업인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농협중앙회 소속 변호사들이 농업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맞춤형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등 농업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김옥기 기자

경진원, 시금형제작지원 참여 희망업체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2024년 시금형제작지원사업 참여 희망업체를 8일부터 모집한다.

본 사업은 시제품 제작 이후 양산의 전 단계인 시금형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모집대상은 도내 거주 1년 이상의 예비창업자와 7년 미만의 도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희망업체를 모집하면 평가를 통해 최종 8개 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고무금형 등 시금형 제작에 필요한 제작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기간 내 현장점검을 통한 컨설팅, 과제관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8일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



항은 전화 문의(063-711-2107~9)와 경진원 홈페이지(www.jbb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진원 담당자는 "도내 예비창업자와 제조기업들의 안정적인 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시금형 제작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